

청소년 업무 실무자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문화간 훈련방안에 대한 모색 :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바탕으로*

김 예 랑**

초 록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적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주요 도구로서 문화간 훈련이 있다. 과거 문화간 훈련은 다문화교육만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를 통합하여 청소년 업무 실무자 대상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의 문화간 훈련방안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erry(1997)의 문화적응이론(acculturation strategy)을 바탕으로 제시된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통합, 동화, 격리·분리, 주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문화적응 유형에 맞는 문화간 훈련방안(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접목)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적으로 보다 적절한 문화간 훈련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소년 업무 실무자 대상의 훈련방안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의 훈련방안을 각각 4개의 문화적응 유형별로 나누어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간 훈련 프로그램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문화간 훈련, 청소년 업무 실무자, 청소년, 다문화가정,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I. 서 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기회의 평등에 대한 보장은 국제사회적인 규범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적 책임이다(김연희, 2007). 정치와 경제 분야 등에서 이미 오랜 역사에 걸쳐 활발한 다문화간 교류가 이루어져 왔듯이, 최근 복지적 개입이나 서비스, 정책분야에 있어서도 국가를 초월한 협력과 교류가 중요시 되고 있다(Weis-Gal & Welbourne, 2008; Ahmadi, 2003).

다양한 문화권과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강조는 국제사회에서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의 혼인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¹⁾이 새로운 가족유형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2009)는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조사를 통해, 국제결혼이민자의 수가 2009년 총 16,7천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 110.0%(연평균 6.7%) 증가하고,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도 2009년 총 99,7천명에서 2020년 302,7천명으로 203.7%(연평균 10.1%) 증가하여 국제결혼이민자와 자녀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녀수의 변화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영유아(0~6세)(2009년 66,8천명→2020년 156,2천명, 2배이상 증가), 초등학교생(7~12세)(2009년 20,1천명→2020년 86,6천명, 4배 증가), 중학생(13~15세)(2009년 3,2천명→2020년 23,1천명, 7배 증가), 고등학생(16~18세)(2009년 1,9천명→2020년 12,9천명, 6배 이상 증가), 대학생(19~22세)(2009년 2,2천명→2020년 12,6천명, 6배 증가), 노동참여가능인구(23세 이상)(2009년 4,7천명→2020년 11,3천명, 2배 이상 증가) 등 전 연령대에서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 단일민족을 강조해왔던 한국사회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을 포괄하며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가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의 진척정도를 국민들의 의식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변화는 인구 구성적 변화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의식은 여전히 ‘단

1) ‘다문화가정’은 한국과 구별되는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 이주 노동자 가정, 귀화가정, 새터민 가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국제결혼 가정과 이주 노동자 가정을 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일문화’, 즉 ‘한국의 지방적 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전태국,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국민들은 친구·이웃·동료로서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에는 배타적이지 않았으나 국민·가족·혈연으로서 수용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사회의 인구구성이 다문화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지 시스템이나 서비스,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한국의 단일문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대한 해결대안의 하나로써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별다른 사회적 저항 없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가정 내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대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다문화가정의 적응실패는 가출, 별거, 이혼 등의 가족해체현상, 가정폭력, 자녀방임 및 유기, 빈곤의 계층화, 범죄, 폭동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자아상과 자아정체감, 문화적응 및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구성은 초등학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성장하여 청소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동반될 것으로 예측 된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내면에 대한 성찰과 자아인식을 통해 자아상을 만들어 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개인의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외부의 인식과 평가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적절히 수용되거나 통합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편견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건전한 청소년기 발달과 성장 과정에 있어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대인관계적, 사회적 어려움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과정은 가정, 또래집단과 학교, 더 나아가 전체 지역사회로까지 파급되어 문화간 충돌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손성철, 2008).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수준과 대인관계(김교정, 정규석, 2008), 문화부적응과 정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편견과 차별(안권순, 2009)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경숙(2008)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들이 학업(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움, 숙제 및 준비물 챙기기 등)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언어적·문화적·환경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거나 수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한계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장애로 비롯된 학업에 대한 어려움은 단순히 수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위축이나 공격성 등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이지혜, 채지은, 2007). 민창기(2008)는 언어능력과 타문화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등의 언어능력 수준이 타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형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부족한 의사소통 능력은 타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방과후 교실이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프로그램 등이 있으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멀지않은 미래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가 급증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적으로 민감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전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안권순, 2009; Mistry, Jacobs & Jacobs, 2009; Walker, 2005; Harris et al., 2001; O'Hagan, 1999). 다문화가정의 주체성, 문화적 권리, 문화적 적응, 사회적 통합 등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사회가 다양한 문화권과의 상호작용과 적응에 있어 수용적인 시각과 자세를 갖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 적응수준과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 즉 문화간 훈련(intercultural training)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교정, 정규석, 2008; 손성철, 2008; 윤인진, 2008; 전경숙,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문화간 훈련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은,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나 청소년기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직접 상호작용하게 되는 청소년 업무 실무자는 한국 주류문화(중심문화)에 속해있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문화적 소수집단(주변문화)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적응 수준은 개인의 의사소통과 행동양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에 대해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문화와 접하게 되어 적응을 해야 하거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시점에서, 개인은 자신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다른 심리적 반응과 행동양상을 보이게 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정과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을 진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청소년 업무 실무자의 건강한 문화적응이다(Mistry et al., 2009). 문화적응은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다양성에 대한 존중, 문화적 성찰과 평가, 문화적 지식의 활용, 문화적으로 적절한 태도와 행동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이 있다(Mason, Benjamin & Lewis, 1996). 청소년 업무 실무자는, 건강한 문화적 적응을 통해 문화적으로 역량 있는 복지적 개입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청소년 업무 실무자가 문화적 차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서비스의 시행과정에서 그러한 문화적 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서비스 실무자의 효과적인 개입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Walker, 2005).

문화적응은 청소년 업무 실무자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절한 문화적응의 달성을 통해 청소년은 한국문화를 포함하여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교류과정에서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Cheng, 2007; Boyle & Springer, 2001),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과 자존감의 형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화간 훈련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사항들은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다. 현재 현장에서는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별개의 목적을 가진 교육으로 따로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다.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문화교육은 한 국가 내 다양한 문화적 집단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삶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누리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반면에 세계시민교육은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국제사회 공동체로서의 시각을 갖고 세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순희, 이주희, 김은진, 2011).

그러나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의 내용에 있어 연관성이 높고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양옥승, 2010; 김현덕, 2007). 다문화교육의 한계점에 대한 비판을 보면, 다문화교육이 국내 문화적 소수집단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초점을 두다보니 그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못한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²⁾은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자원, 교육 등의 기회 불평등이나 사회적 차별에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점이 자국 내에서의 시민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화간 갈등이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통합하여 청소년 업무 실무자 대상의 문화간 훈련방안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간 훈련방안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Berry(1997)의 4차원 이론(acculturation strategies)³⁾을 바탕으로 문화적응의 유형을 통합, 동화, 격리·분리, 주변화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 업무 실무자와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의 문화간 훈련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청소년 업무 실무자나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의 문화간 훈련방안에 대한 개발은 현재 초기단계의 수준으로서 이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조사와 탐색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유용식, 손호중, 2009). 본 연구의 의의는 문화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를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2) 세계시민교육은 과거 국제이해교육, 국제개발협력교육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순희, 이주희, 김은진, 2011).

3) Berry(1997)의 4차원 이론은 문화적응유형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성현란, 2011). 이 이론은 특별히 문화적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이 각각 어떠한 문화적응유형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업무 실무자(문화적 다수집단)와 다문화가정 청소년(문화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간훈련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한 이론이다.

첫째, 문화적응이론(Berry, 1997)을 바탕으로 유형별(통합, 동화, 격리·분리, 주변화) 문화적응의 특성을 조사한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목적과 교육내용을 조사하여, 문화간 훈련방안의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문화간 훈련방안을 청소년 업무 실무자(문화적 다수집단) 대상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문화적 소수집단) 대상으로 분리하고, 이를 다시 문화적응의 네 가지 유형별(통합, 동화, 격리·분리, 주변화)로 나누어 논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특성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지닌 집단이 한 사회 안에 함께 거주함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로서 각 문화집단이 서로의 문화적 특수성과 유사성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회를 의미한다(유용식, 손호중, 2009). 이러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혼란, 불만, 사회계층화 등의 사회문제들은 개별적인 다문화가정이 해결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체 한국사회의 안정과 응집력은 크게 저해될 것이다. 특히 타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낮은 한국사회 속에서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로 통합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서 ‘주변인’이나 ‘부적응자’로서 규정된다면,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대해 갖게 되는 반감과 적대감의 수준은 매우 높을 것이며, 이러한 감정이 적절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공격적·폭력적 대응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문화가정이나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비교적 소수이며 이들의 힘이 집약되어 있지 않지만, 다가올 미래에는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권리를 찾고자 할 것이다. 또한 그와 관련된 사회적 제도, 정책,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 평등과 안정의 보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최충옥(2008)은 다문화사회로의 진행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표 1 참조). 1단계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초기(진입)단계로서 전체 인구 구성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지출도 크지 않은 시기이다.

2단계는 이주민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나 다문화정책이나 제도가 여전히 미흡한 시기이므로 다양한 사회문제(가족해체, 소득격차, 실업, 사회부적응, 범죄, 비행 등)와 인종간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게 되는 단계이다. 한국사회는 현재 1단계에서 2단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로 볼 수 있다(장미혜, 2008).

표 1

다문화사회로의 진행단계별 특성과 사회적 위험

다문화사회 진행단계		특 성	사회적 위험
진입 단계	1단계	• 낮은 이주민 비율 • 초보적 다문화정책수준 • 사회적 개방수준 낮음	• 이주민의 사회적 불만이나 욕구가 표출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음 • 사회적 갈등이 가시화되지 않음
	2단계	• 이주민 유입의 본격화 • 다문화정책과 제도적 기반 미흡	• 이주민 대상 사회적 비용(사회복지 정책·서비스)의 증가 • 이주민에 대한 주류사회의 차별 • 이주민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증가 (가족해체현상, 소득격차, 실업, 사회부적응, 범죄, 비행 등) • 인종간 사회적 갈등의 가시화
전환 단계	3단계	• 이주민 비율의 급격한 증가 • 이주민 공동체 형성 (출신국별 집단거주지 출현) • 다문화 정책과 제도적 기반 재조정	• 이주민 대상 사회적 비용(사회복지 정책·서비스)의 급증 • 사회적 혼란 증가 • 인종간 사회적 불평등(교육, 취업, 소득 등)의 악화 • 이주민의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과 요구(사회적 조건과 기회의 평등)
	4단계	•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문화적 차이에 대한 포용성의 증가) • 이주민 2세의 사회진출 • 이주민 공동체의 재생산 • 기회평등과 차별금지의 제도화 (이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 보장, 참정권 인정)	• 이주민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심화 • 이주민 2세의 인종적 정체성 혼란 • 인종에 따라 사회적 빈곤의 계층화 • 이주민 대상 사회적 비용(사회복지 정책·서비스) 부담의 증대

* 출처: 장미혜(2008, p. 47)와 최충옥(2008, p. 14-1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다문화사회로의 진행단계 중 3단계는 이주민 비율이 급증하는 시기로 이와 관련해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장 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 수의 증가에 비해 사회적 제도나 정책,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자국민의 인식 변화수준이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이주민의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 기회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인종별 소득격차 문제가 악화되는 시기이다.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바탕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 사회적 조건과 기회의 평등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다문화사회 진행단계의 마지막 4단계는 정착 및 안정의 단계로서 성공적인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국가 내에서 인종·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평등한 사회적·문화적·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수용성이 증가하여 다문화집단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만약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다면, 주류집단과 소수집단(다문화가정) 간의 갈등과 반목, 의사소통의 단절, 사회적 불만의 증대, 사회적 응집력의 약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최충욱(2008)은 다문화사회의 진행단계 중 2단계(이주민 유입의 본격화)에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지출이 많은 3단계를 거치지 않고 4단계(다문화사회 정착)로 성공적으로 이행한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사회도 이와 같이 되기 위해 다문화가정 대상의 정책과 제도 및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다문화주의란 다문화 사회를 규정하는 이념적·정책적 체계로서,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집단들이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존중과 수용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윤인진, 2008). 즉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라는 주류집단의 문화에 소수집단(다문화가정)의 문화가 흡수되지 않고 존속하며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이나 제반 제도, 정책, 프로그램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한국적 다문화주의는 타문화와 한국문화간의 상호적응과 통합의 의미가 아니며, 타문화가 한국문화 속으로 동화(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김민경, 2010; 김교정, 정규석, 2008; 김지현, 2008). 손성철(2008)은 한국사회(주류집단) 속에서 이주노동자나 다문화가정(소수집단)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압박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며, 한국사회에서는 타문화에 대해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타문화에 대한

존중이나 수용의 수준도 낮아 소수자 집단의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이나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Ruddock과 Turner(2007)는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사회로의 변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휴먼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주류문화(중심문화)를 기준으로 교육이나 서비스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건강한 문화적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초점은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구성원 전체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 없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문화적응 이론과 문화적응 유형별 특성

Berry(1997)는 문화적응의 유형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격리·분리(segregation/separation), 그리고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문화적응의 유형은 개인의 문화적 소속이 다수집단(주류문화)인 경우와 소수집단(주변문화)인 경우 모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문화적 역량을 갖춘 문화적응의 유형은 ‘통합’으로서 모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타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차원이다. Sue와 Sue(2008) 역시 통합적인 문화적 정체성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각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인지할 수 있으며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있지만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수용 역시 가능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문화적응의 유형 중 ‘통합’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본인의 문화적 소속(다수문화 혹은 소수문화)과 관계없이 타문화와의 상호작용시에 다수문화와 소수문화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호기심과 열린 태도를 갖고 관계를 형성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 태도와 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자이다.

반면에 문화적응의 유형 중 ‘동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수문화를 부정하고 다수문화의 우월성을 제시하며 다수문화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이 문화적으로 다수집단일 경우, 소수문화에 대해 문화적·사회적·정

서적 속박을 제공하며 다수문화에 흡수될 것을 강요하게 되며, 자신이 문화적으로 소수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문화집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문화적 자긍심이 낮아 다수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 하게 된다(은지용, 2009).

‘격리·분리’의 문화적응 유형은 다수문화와 소수문화간의 조화와 통합이 아닌 문화간 격리와 분리를 강조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다수집단의 사람은, 다수문화 속에서 소수문화를 격리시키며 수용하지 않고 차별을 가하게 되며, 이 유형에 해당되는 소수집단의 사람은 소수문화만을 강조하며 다수문화로부터 분리되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거나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Berry, 1997).

그리고 문화적응의 유형이 ‘주변화’인 경우에는 다수문화와 소수문화 모두를 부정하고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주변화 되려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다수집단에 속한 사람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소수집단 소속의 사람들에게서는 관찰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하였다(Berry, 1997). ‘주변화’의 유형에 속하는 소수집단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나 관심, 문화적 유지에 대한 동기 등이 취약하며, 다수문화와의 교류나 적응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이다.

단일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자긍심을 강조해온 한국사회 내에서는 한국문화를 절대적인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문화적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소수문화가 한국문화로 동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지배적일 것이다. 김혜숙 외(2011)는 한국사회가 집단 범주화에 익숙한 문화권으로서 약자(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가 강한 사회라고 규정하였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높을수록 타문화권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자녀에 대해서는 ‘동화’의 문화적응 유형이 강조되고 있다. 박주희와 정진경(2007)은 거주자의 필요에 의해 타국가의 문화를 수용하게 되는 ‘동화’를 ‘자발적 동화’와 ‘비자발적 동화’로 구분하여 제시였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주자와 그 자녀가 모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 빠른 시일 내에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편입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압력이 강하다.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의 경우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해 성찰하거나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나 자원(프로그램, 서비스)이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비자발적인 동화’의 유형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이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수용하고 통합하며, 문화적으로 역량 있는 태도와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지적(cognitive), 정서적(emotional), 그리고 행동적(action) 측면의 발달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Jirwe, Gerrish, Kenney & Emami, 2009; Plum, 2008). 즉, 개인이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축적하게 된다면(인지적 측면) 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인식의 변화는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 공감과 수용의 능력을 강화시켜(정서적 측면),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태도를 실천(행동적 측면)할 수 있도록 하므로 세 가지 측면의 개발이 모두 중요하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3.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내용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국가 내부에 있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정과 통합, 평등한 기회부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으로 문화, 인종, 출신국가, 성, 사회적 계층 등과 관련된 차별과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이다(장인실, 2006). 이를 통하여 국가 내에서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다민족 국가에서 다양한 문화간의 차별이나 신분적 위계구조의 문제를 조화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으며(하윤수, 2009), 1960년대 흑인문화운동을 계기로 출발한 이래 1970년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경제적 계층, 성적취향 등의 다양한 집단에 있어 상호존중과 이해 및 평등한 접근을 강조하는 교육운동이 되고 있다(장문강, 2008).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과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2006년경이며, 그 이후 한국어·문화교실 운영, 임신·출산·양육 지원 서비스, 가족상담 서비스, 이주민 쉼터 운영, 이주민 대상 다문화 교육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지현, 2008). 보건복지가족부(2009)가 지정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사업안내에 의하면 이주민을 대상으로 표 2와 같은 내용으로 다문화교육을 년 2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이주민이 자신의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통합하도록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이주여성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인 대상의 다문화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인 대상의 다문화교육이 실시되는 경우에도 1회성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거나 단순한 문화체험을 하는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의 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자각과 성찰적 이해 및 수용적 태도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안권순, 2009).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박기범(2009)은 교육청, 공익재단이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인터넷 다문화교육 사이트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는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응’ 중심의 일방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해당 문화별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예: 문화별 사이버 공동체, 정보공유 및 소통의 공간, 문화별 모국어 지원 등)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동화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정보에 접근하거나 의사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이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해 균형적인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Phinney, Horenczyk, Liebkind and Vedder(2001)는 이주민이 이민문화에 적응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이주민들이 그들의 고유한 민족정체성이나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이민사회에 적응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별히 이주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인의 민족정체성이 뚜렷할 때에 다수자 문화에 잘 적응하고, 학업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적응력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Phinney et al., 2001), 현재의 다문화교육 내용에 대한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다문화교육

교육 영역	교육 내용
법률 및 인권교육	① 국내체류 ②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③ 생활과 법
결혼과 가족의 이해	① 결혼과 가족의 이해 ② 가족교육관련 전문기관 안내
한국사회적응 교육	① 공공기관 및 공중도덕 ② 건강과 의료, 임신 및 출산 ③ 정보화 교육 ④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⑤ 한국의 교육제도 ⑥ 각종분야의 정보제공
다문화이해교육	① 다문화사회의 이해 ② 다문화가족의 문화갈등과 적응 ③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한국문화와 결혼이민자 출신국 중심)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9), p. 51.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는데, 다문화적인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해(인지적 측면),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성찰을 통해 타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서 형성(정서적 측면), 그리고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조절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행동적 측면)이 그것이다. 정진경과 양계민(2005)은 인지적인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문화 특수적인 내용(문화적인 차이)과 문화 일반적인 내용(문화적 유사성)을 함께 다룰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자문화와 비교하여 타문화가 지니고 있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반면에 문화를 초월하여 공통적인(인류 보편적인) 특성, 문화적 유사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표 3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교육 내용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인지적 측면 문화적 정보와 지식의 습득 (다문화 이해의 기초)	문화 특수적인 내용 • 일상생활문화 교육,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양옥승, 2010) •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노래, 민요, 춤, 의상, 음식, 명절, 주거형태 등 교육(배재정, 2010) •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교육(박기범, 2009) • 문화적 특성, 풍습, 언어, 사회, 기후, 교육, 교통, 대인관계 등 교육(정진경, 양계민, 2005). • 다양한 문화의 역사, 문학, 음악, 미술 등에 대한 소개와 해석(설규주, 2004). 문화 일반적인 내용 • 문화적 공통성과 보편성에 대한 탐색, 문화적 경계를 초월한 인류보편적인 가치 교육(자유, 평등, 정의, 인권 등)(배재정, 2010) • (미/국) 다문화와 국제화, 인권, 평등, 정의 등 인류 공통의 관심 교육(장인실, 2006).
정서적 측면 자문화 및 타문화에 대한 성찰, 차이 수용, 및 존중하는 마음의 개발	• 자신의 문화적 인식에 대한 평가, 자신에 대한 인식의 촉진(자문화에 대한 성찰) (정진경, 양계민, 2005) • 미술, 문학 음악활동 등을 통한 자기표현, 고정관념 · 편견 · 차별적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토론(양옥승, 2010) • 문화적 상황과 관련된 사례(오해, 문제, 갈등 등)에 대한 소규모 토론(정진경, 양계민, 2005) •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 각 문화의 신념, 가치, 기대, 태도, 행동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문화에 대한 비교체험(정진경, 양계민, 2005) • (미/국) 문화 · 인종 · 계층간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직시, 불평등한 사회의 변혁, 공정한 사회의 실현에 대한 교육(하윤수, 2009)
행동적 측면 다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행동의 실천	• 역할극과 현장체험(외국 방문, 외국인 거주지역 방문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직접 실천해보고 이에 대한 피드백 받기(정진경, 양계민, 2005) • (미/국) 다양한 민족 · 인종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사회적 활동)을 실천하도록 교육(장인실, 2006)

4. 세계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시민으로서 타국의 문화와 세계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다.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구촌 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 인구, 인권, 환경,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경우, 선행연구를 통해 필요한 교육 방안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교육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을 표 4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로는 인류와 세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대한 이해(인지적 측면), 세계적 이슈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해 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동기와 태도의 형성(정서적 측면), 세계적·지역적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기능을 이해하고 참여적 행동의 실천(행동적 측면)이 있다.

표 4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교육 내용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인지적 측면 국가간 이해와 공존	• 평화교육,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설규주, 2004) • 경제, 문화, 정치, 사회적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 (예: “내 생활 속에서 수입물품이 사라진다면?”)(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9, p. 26)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동북아(한국, 북한, 중국, 일본) 청소년정책네트워크, 해외 인턴쉽 등을 통한 국제교류 교육과 체험의 기회 부여(여성가족부, 2010). • (미국) “세계 속의 지역사회, 지역사회 속의 세계”(김현덕, 2007, p. 12)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전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학습
정서적 측면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 이해하려는 동기와 수용적 태도 형성	• 국제사회 문제(빈곤, 인권, 건강, 환경, 계층간 불평등, 노동, 교육 등)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관심의 형성과 통합적이고 비판적인 사고(토론) (예: “초콜릿과 공정무역”)(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9, p. 266) • 국제사회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한 이해(예: 아동인권보호 NGO 활동 조사 등)와 참여 동기의 증진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9) •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대안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기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예: “축구를 통한 나눔의 방법 찾기”)(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9, p. 214) •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유럽국가의 역사적 발달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국제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할 필요성과 동기 강화(김현덕, 2007). • (미국) 학생들을 중심으로 “세계연구팀”(김현덕, 2007, p. 14)을 구성하여 환경, 과학, 예술, 언어, 세미나 등의 과목을 직접 기획한 이후 수업을 시행하여 국제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 강화
행동적 측면 국제사회 시민으로서 참여적 태도와 행동의 양성	• 국제사회 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책임의식 형성 (예: “탄소발자국 줄이기에 참여하기”)(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9, p. 293) • 국제사회 시민으로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의 모색(협동학습과 토론)(예: “아름다운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실천방법”)(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9, p. 19) • 해외봉사 계획세우기 활동 활용(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9, p. 364) 청소년 국제환경 및 평화연대 구축(청소년 외교사절단)에 대한 지원(여성가족부, 2010).

III. 문화적응이론에 기반한 문화간 훈련방안의 개발

문화간 훈련은 다문화적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문화적으로 적절한 정서, 태도,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수단이다. 현재의 문화간 훈련은 개인의 문화적 소속(다수문화 혹은 소수문화)이나 문화적응의 유형별로 교육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문화적 소속이나 문화적응의 유형별로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정서적 태도와 행동,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문화적 소속 및 문화적응 유형에 맞춰 적절한 훈련방안이 마련될 때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적응력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다수집단(주류집단)에 속하게 되는 한국인 청소년 업무 실무자와 소수집단에 속하게 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문화간 훈련방안을 구분하여 훈련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훈련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목적이 상호보완적이므로 이들의 통합적 사용을 통한 문화간 훈련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설규주, 2004). 그간 다문화교육의 초점은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서로 다르지만 평등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었으며, 세계시민교육의 강조점은 국가를 넘어 타지역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병행될 때에 교육적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 한국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 간의 갈등과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문화에 대한 존중과 인정, 참여에 대한 개방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게 된 계기로써 국제사회의 자본의 논리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주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세계화 현상을 통해 국가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전 지구적인 노동시장의 구조변혁이 이루어졌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조상식, 2009). 설규주(2004)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핵개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빈곤 등의 문제는 단일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의 수위를 넘어선 상황이나, 특정 국가나 지역(문화권)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쟁점도 다문화교육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한 쟁점에 얽혀있는 국제사회 다양한 문화권간의 이해관계와 갈등구조와 관련하여, 현황, 원인, 갈등, 해결방안 등의 내용이 다문화교육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경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세계문제의 해결, 타문화와의 교류 및 이해의 증진방안도 국내에서의 다문화적 갈등상황에 대한 개입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진행될 수 없기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업무 실무자의 문화적응 유형별 문화간 훈련방안

1) '통합' 유형

문화적응 유형중 '통합'의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 업무 실무자는 자문화(한국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타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차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문화간 훈

런에서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이 함께 진행되고 참여자의 문화적응유형에 맞게 교육목표와 훈련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교육 목표를 통합하고 이를 ‘통합’ 유형의 청소년 업무 실무자를 위한 문화간 훈련방안으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이 유형의 청소년 업무 실무자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가능하므로 자문화와 타문화와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고, 다문화적 관점을 의도적으로 내면화하며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예: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진솔한 감정이입과 공감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상담하는 방법 훈련·실습·현장체험, 국제사회 및 다문화 청소년의 인권과 정의 등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 다양한 문화적 집단 간의 자유로운 의사교환과 토론의 활용, 다양한 문화적 집단과의 네트워크형성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모색 등).

표 5

청소년 업무 실무자의 문화적응 유형(통합)과 문화간 훈련방안

교육 내용	교육 목표	훈련 방안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통합	인지적	• 자문화와 타문화의 특성에 대한 성찰과 반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의 차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 국제사회의 문제와 국내의 다문화적 상황과의 상호연관성과 의존성에 대한 이해의 심화
	정서적	• 다문화와의 갈등이나 문제발생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서적 태도의 증진 • 국제사회 문제와 국내의 다문화사회 문제의 발생원인과 • 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태도의 함양
	행동적	• 실생활 적용 훈련, 역할극, 실습, 현지체험, 현장체험 • 국제사회의 문제와 국내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계획과 실천

2) ‘동화’ 유형

‘동화’ 유형의 문화적응을 보이는 청소년 업무 실무자는, 다수(주류)문화인 한국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바탕으로 타문화를 비하하거나 부정하고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유

지하며 타문화를 한국문화 속으로 흡수시키고자 하는 차원에 있다. 민족적 단일성에 대한 자긍심을 강조해왔던 한국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동화’ 유형의 청소년 업무 실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동화’ 유형의 청소년 업무 실무자에 대한 문화간 훈련방안은 표 6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청소년 업무 실무자는 우선 타문화에 대하여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소년 업무 실무자 자신의 문화적 인식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예: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 보기, 친밀하지 않은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 갖기,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의 습득,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문화적인 보편성과 유사성에 대한 탐색, 타문화를 열등하게 인식하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살펴보기, 다문화 청소년(소수집단)과 청소년 업무 실무자(다수집단)의 관계와 관계 속에서의 차별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

표 6

청소년 업무 실무자의 문화적응 유형(동화)과 문화간 훈련방안

교육 내용	교육 목표	훈련 방안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의 통합	인지적	- 문화적 유사성(인류 보편적인 가치기반)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자문화와 타문화(소수문화)를 동등하게 인식하기 - 타문화(소수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의 해소 - 국제사회의 상호연관성과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국제사회 속의 나)
	정서적	- 자문화(한국문화) 우월주의-중심주의적 태도에 대한 인지 및 자기평가를 통해 타문화에 대해 편견 없이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의 부여 - 타문화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가치관 형성 - 국제사회문제와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형성
	행동적	- 자신의 문화적 인식이 항상 옳지 않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문화적 문제상황에 개입하고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 모색(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다문화적 상황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에 대한 탐색과 행동실천방안 모색) - 국제사회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형성 - 다문화가정과의 공동체 의식 형성

3) ‘격리·분리’ 유형

문화적응 유형 중 ‘격리·분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 업무 실무자는 한국 문화와 타문화간의 교류와 상호적응보다는 소수문화를 한국문화로부터 격리시키고, 한국문화의 유지만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유형의 청소년 업무 실무자는 타문화의 장·단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타문화에 대해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격리·분리’ 유형의 청소년 업무 실무자에 대한 문화간 훈련방안은 표 7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균형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애매함과 혼란을 인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문제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의 모색 및 행동방식에 대한 학습과 훈련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표 7

청소년 업무 실무자의 문화적응 유형(분리)과 문화간 훈련방안

교육 내용	교육 목표	훈련 방안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통합	인지적	- 자문화(한국문화) 중심의 시각이 타문화와의 교류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 세계 속에서의 한국문화, 한국 내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정서적	- 타문화(소수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된 원인과 경험에 대한 탐색과 대화를 통해 소수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정서의 형성 - 문화적 차이와 애매함, 혼란에 대한 인내심 갖기 -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서적 태도
	행동적	- 자문화와 타문화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적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방식의 학습과 연습 - 국제사회에서, 또한 한국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집단토론과 발표

4) ‘주변화’ 유형

‘주변화’ 유형의 청소년 업무 실무자는 한국문화와 타문화 모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두 문화 모두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 업무 실무자는 실제로 그 수가 많지는 않겠으나(Berry, 1997), 이러한 유형에 대한 훈련방안을 표 8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청소년 업무 실무자는 개인적인 문화적 정체감의 발달도 미흡한 차원에 있으므로 자문화(한국문화)에 대한 자각과 인식 및 개인의 내면적 정체감에 대한 성찰과 함께, 타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시각과 마음을 갖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예: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업무 실무자 개인이 갖는 정체감에 대한 탐색,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청소년에 대해 보편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개입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의 인식과 이에 대한 행동전략 세우기,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와 국제사회의 행복을 위한 행동 전략 세우기 등).

표 8

청소년 업무 실무자의 문화적응 유형(주변화)과 문화간 훈련방안

교육 내용	교육 목표	훈련 방안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의 통합	인지적	- 자문화(한국문화)와 타문화(소수문화)의 특성, 강점, 단점, 차이에 대한 이해 -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집단이 교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정서적	- 자문화(한국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깔려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살펴보기 - 다양한 문화권과 교류하고 상호작용하고자하는 정서적 태도의 형성
	행동적	- 국제사회와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사회 내부의 협력과 평화를 위해 청소년 업무 실무자로서 자신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행동방안에 대한 계획 세우기 - 한국문화와 타문화와의 접촉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업무 실무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방안에 대한 계획 세우기 - 바람직한 사회변화를 위하여 청소년 업무 실무자로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방안에 대한 계획 세우기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별 문화간 훈련방안

1) ‘통합’ 유형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통합’적 문화적응유형에 속하는 경우는, 모국 문화(소수문화)에 대한 긍정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는 동시에 한국문화(다수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차원이다. ‘통합’ 유형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문화간 훈련방안은 표 9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한국사회 내부에서나 국제사회적으로 갈등이나 분쟁,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전략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역할극이나 실습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예: 문화적 갈등상황 발생시 불편함과 고통을 견디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행동전략 연습, 문화적 갈등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문화적 정체감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행동전략 연습, 국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의 계획, 다양한 문화적 집단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을 통한 관점의 확장 등).

표 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통합)과 문화간 훈련방안

교육 내용	교육 목표	훈련 방안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통합	인지적	- 모국문화에 대한 성찰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통합 -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과정과 한국사회의 다문화화 과정에 대한 이해
	정서적	- 모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의 갈등과 문제상황 발생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의 증진 - 국제사회 문제와 국내의 다문화사회 문제의 발생원인과 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정서의 함양
	행동적	- 실생활 적용 훈련, 역할극, 실습, 현지경험, 현장체험 - 국제사회의 문제와 국내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방안의 모색(다양한 문화집단간의 자유로운 의사교환과 토론의 활용)

2) ‘동화’ 유형

‘동화’ 유형에 속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모국 문화(소수문화)를 부정하고 한국문화(다수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문화에 흡수되고자 하는 차원이다. ‘동화’ 유형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문화간 훈련방안은 표 10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청소년들은 모국문화와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 열등감과 불편한 감정에 대해 탐색하고 그러한 감정을 해소하도록 지원하여, 모국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예: 한국문화와 모국문화에 대한 성찰적 이해, 한국사회에서의 모국문화의 강점 및 국제사회에서의 모국문화의 강점에 대한 이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전략의 모색, 국제사회 속의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 등).

표 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동화)과 문화간 훈련방안

교육 내용	교육 목표	훈련 방안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의 통합	인지적	•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 • 국제사회의 상호연관성과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정서적	• 모국문화를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경험,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을 통해 모국문화에 대한 긍정적 정서 형성 • 국제사회문제와 한국사회 내부의 자신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형성
	행동적	• 한국사회 내에서 모국문화가 지니고 있는 독특성과 강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적 충돌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동의 실천방안 연습 • 국제사회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형성 • 한국사회와의 공동체의식 형성

3) ‘격리·분리’ 유형

‘격리·분리’의 문화적응 유형에 속해있는 청소년들은 한국사회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편견으로 인해 모국의 문화(소수문화)만을 강조하며 한국문화(다수문화)로부터 분리되어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청소년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문제로서 다수문화로부터의 억압으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 열등감, 자기비하적 시각, 억압된 분노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 ‘격리·분리’ 유형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문화간 훈련방안은 표 1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예: 한국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깔려있는 경험과 그에 대한 감정의 표출, 한국문화와 모국문화에 대한 균형적 이해와 문화적으로 적절한 행동에 대한 학습과 훈련·모델링·역할극·사례연구, 국제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권이 공존하기 위한 방안 토론, 또한 한국사회 내에서 모국문화와 한국문화가 공존하도록 돕기 위한 나의 행동전략 계획 세우기 등).

표 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분리)과 문화간 훈련방안

교육 내용	교육 목표	훈련 방안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통합	인지적	• 모국문화와 한국문화(다수문화)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와 평가 • 세계 속에서의 모국문화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내에서의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정서적	• 한국문화(다수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된 원인과 경험에 대한 탐색과 대화 •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수용적인 정서의 형성 • 국제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 내부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평화로운 공존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서적 태도
	행동적	•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적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방식의 학습과 연습 • 국제사회에서, 또한 한국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과 행동계획 실천

4) ‘주변화’ 유형

‘주변화’ 유형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모국문화(소수문화)와 한국문화(다수문화)를 동시에 부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모국문화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하며 그러한 문화를 배우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도 약화되어 있다. 또한 다수문화인 한국문화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경험이 많아 한국사회에 통합되고자 하는 욕구나 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주변화’ 유형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문화간 훈련방안은 표 1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예: 한국사회에서의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경험의 공유,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찾아보기, 모국문화와 한국문화 중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협동학습과 발표, 모국문화나 한국문화에 대한 접촉의 기회를 늘리기 위한 행동 계획 세우기 등).

표 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주변화)과 문화간 훈련방안

교육 내용	교육 목표	훈련 방안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통합	인지적	• 모국문화와 한국문화(다수문화)의 특성, 강점, 차이에 대한 이해 • 국제사회에서, 또한 한국사회 내부에서 다양한 문화적 집단이 교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정서적	• 모국문화와 한국문화(다수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깔려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살펴보기 • 다양한 문화권과 교류하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정서적 태도의 형성
	행동적	• 국제사회와 한국사회 내부의 협력과 평화를 위해 청소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행동방안에 대한 계획 세우기 •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와의 접촉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 세우기 • 바람직한 사회변화를 위하여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계획 세우기

I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 업무 실무자 대상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간 훈련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한 탐색을 통해 향후 문화간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간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업무 실무자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별로 훈련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교육내용의 구성도 다문화교육적 요소와 세계시민교육적 요소를 골고루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문화간 훈련에 있어 다수집단(한국문화) 대상의 교육내용과 소수집단(타문화) 대상의 교육내용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문화권 간의 갈등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자(기득권)와 소수자(약자)간의 계층적 갈등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박성혁, 곽한영, 2009).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개입계획, 수행과 평가의 과정에 있어 다수문화에 속해 있는 청소년 업무 실무자는 소수문화에 속해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과 욕구에 맞춰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동기부여 및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손상된 기능의 회복 및 문제해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Arora & Rohmetra, 2010; Mistry et al., 2009; Harris et al., 2001; Resnicow, Soler, Braithwaite, Ahluwalia & Butler, 2000). 청소년 업무 실무자의 건강한 문화적응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다수집단(한국문화)에 속하는 청소년 업무 실무자 대상의 문화간 훈련방안의 초점은 한국문화와 타문화를 균형적으로 이해하고 동등하게 수용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의 상호작용시에 문화적으로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권과의 교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불안, 스트레스, 애매함, 혼란스러움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감정에 깔려있는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낯선 타문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문화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타문화권 사람들

의 문화, 역사, 풍습, 생활방식, 언어, 이야기, 음악, 미술 등에 대한 교육과 체험 및 상호작용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문화와 타문화간의 문화적인 보편성과 유사성에 대한 탐색, 국제사회에서의 문제가 한국사회 내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국제사회와 한국사회 내부의 문화적 갈등이나 충돌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및 행동방식에 대한 학습, 토론과 발표, 연습과 훈련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소수집단(타문화)에 속하는 다문화 청소년 대상의 문화간 훈련방안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문화(다수문화)에 적응하는데 있어 자신의 고유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Berry, 1997)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때, 가정·학교·사회생활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과 심리적·정서적 안정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Phinney, et al., 2001).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은 동화주의적 접근방안이 아닌 다문화주의적 교육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문화간 훈련은 한국사회 내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감을 긍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의 회복, 이를 위한 교육 및 행동방안의 계획과 연습, 상담과 지지활동 등이 중요하다. 또한 문화적 갈등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전략을 모색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의 계획과 실행, 한국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집단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을 통한 관점의 확장, 다문화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의 증진 등의 과정도 반영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발달단계상 아동이나 성인과 차이가 있으므로 그러한 연령적 특성에 맞는 특화되고 세분화된 문화간 훈련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체계적인 문화간 훈련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동의와 참여가 동반될 때에 효과적인 문화간 훈련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문화적 배경에 맞는 대인관계형성 훈련, 교육 및 학습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의 욕구 조사와 특화된 훈련방안의 개발, 훈련방안의 시행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간 훈련은 언어, 문화, 경제, 정치, 사회, 생활방식, 사고방식, 태도, 행동, 가치, 지식 등 인간 삶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

응에 대한 교육을 다루고 있으므로, 청소년 업무 실무자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청소년 업무 실무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주민 전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2007년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다문화교육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방안이나 다문화적 요소를 반영하여 교과서를 집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재분, 2008). 그러나 문화간 훈련은 단편적인 교육훈련의 과정으로 제시되기보다 기본적 교육의 내용으로서 전체 시민교육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박성혁, 곽한영, 2009; 설규주, 2004).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문화간 훈련과 관련하여 NGO와 시민, 인종별 다문화 공동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문화간 훈련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인력과 다문화가정, 시민 등의 문화적응유형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내의 문화적 실정이 반영되어 있는 척도의 개발과 평가 연구도 요구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관점이 어우러지는 상황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러한 에너지는 긍정적일수도 있고 부정적일수도 있으나, 이를 긍정적 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기꺼이 직면하고, 인내하며, 수용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문화적 차이는 긴장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새로움의 창조와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Plum, 2008). 문화간 훈련은 다문화간 의사소통이나 관계에 있어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다문화간 갈등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와 행동을 갖추도록 돕는 도구로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는 한국사회 전체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참고문헌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2008). 경기도 다문화교육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 **제7회 경기도다문화교육포럼자료집**.
- 김교정, 정규석 (2008). 다문화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8, 272-285.
- 김민경 (2010).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69-86.
- 김연희 (2007).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 117-144.
- 김지현 (2008).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와 교육. **철학연구**, 106, 29-52.
- 김현덕 (2007).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비교연구: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4), 1-23.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90.
- 민창기 (2008). 외국어 능력과 이문화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 관광전공 학부생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0(4), 59-177.
- 박기범 (2009). 공동체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과제. **사회과교육**, 48(1), 45-55.
- 박성혁, 곽한영 (2009). 다문화교육정책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정책의 방향 모색. **시민교육연구**, 41(2), 97-127.
- 박순희, 이주희, 김은진 (201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8(6), 123-145.
- 박주희, 정진경 (2008).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DI)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2(1), 1-21.
- 배재정 (2010). 유아교사의 다문화적 감수성 발달 및 평가 방안 탐색: DMIS와 IDI의 적용 및 활용. **어린이미디어 연구**, 9(3), 143-165.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가이드북**.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설규주 (2004). 세계시민사회의 대두와 다문화주의적 시민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43(4), 31-54.

- 성현란 (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 다문화가정. **한국심리학회지**, 17(2), 219-239.
- 손성철 (2008).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철학연구**, 107, 1-25.
- 안권순 (2009). 다문화청소년의 건전 육성 방안. **청소년학연구**, 16(7), 99-126.
- 양옥승 (2010). 유아 다문화 교육: 다문화주의의 의미와 적용. **유아교육연구**, 30(4), 305-318.
- 여성가족부 (2010).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 서울: 여성가족부.
- 유용식, 손호중 (2009). 다문화 사회 대응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447-470.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72-103.
- 은지용 (2009). 다문화적 인성 발달 이론에 기반한 다문화 학습 모형 탐색. **시민교육 연구**, 41(1), 107-139.
- 이재분 (2008). 신취약계층(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 **교육개발**, 35(4), 33-39.
- 이지혜, 채지은 (2007). 다문화가정시대 문해교육의 대안적 접근: 영미의 가족문해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1), 29-52.
- 장문강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9, 196-234.
- 장미혜 (2008).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방안. **젠더리뷰**, 10, 44-49.
- 장인실 (2006).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24(4), 27-53.
- 전경숙 (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조사: 학교 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167-185.
- 전태국 (2010). 한국사회의 세계화와 글로벌 의식. **사회와 이론**, 17, 279-345.
- 정진경, 양계민 (2005). 문화간 훈련의 이론과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24(1), 185-215.
- 조상식 (2009).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교육의 한계. **교육철학**, 44, 139-155.
- 최충옥 (2008). 선진국 이민정책과 다문화교육의 동향 및 시사점. **제7회 경기다문화 교육포럼 자료집**, 13-19.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 하운수 (2009). 미국 다문화교육의 동향과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과교육**, 48(3), 117-13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연구**(경제·인

- 문사회연구회 협동총서 07-19-02).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9).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교육: 담장 너머 지구촌 보기**. 서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Ahmadi, N. (2003). Globalisation of consciousness and new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social work. *International Social Welfare*, 12, 14-23.
- Arora, P., & Rohmetra, N. (2010). Cultural intelligence: Leveraging differences to bridge the gap in the international hospitality industry. *International Review of Business Research Papers*, 6(5), 216-234.
- Berry, J.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 Boyle, D. P., & Springer, A. (2001). Toward a cultural competence measure for social work with specific populations. *Journal of Ethnic & Cultural Diversity in Social Work*, 9(3-4), 53-71.
- Cheng, L. L. (2007). Cultural intelligence (CQ): A quest for cultural competence. *Communication Disorders Quarterly*, 29, 36-42.
- Harris, K. J., Ahluwalia, J. S., Okuyemi, K. S., Turner, J. R., Woods, M. N., & Backinger, C. L. et al. (2001). Addressing cultural sensitivity in a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Development of the kick of at SWOPE projec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4), 447-458.
- Jirwe, M., Gerrish, K., Keeney, S., & Emami, A. (2009). Identifying the core components of cultural competence: Findings from a Delphi stud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8, 2622-2634.
- Mason, J. L., Benjamin, M. P., & Lewis, S. A. (1996). The cultural competence model: Implications for child and family mental health services. In C. A. Heflinger, & C. R. Nixon (Eds.), *Families and the mental health system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65-190). Thousand Oaks, CA: Sage.
- Mistry, J., Jacobs, F., & Jacobs, L. (2009). Cultural relevance as program-to-community alignmen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7(4), 487-504.
- O'Hagan, K. (1999). Culture, cultural identity, and cultural sensitivity in child and

- family social work,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4, 269-281.
- Phinney, J. S., Horenczyk, G., Liebkind, K., & Vedder, P. (2001). Ethnic identity,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93-510.
- Plum, E. (2008). *Cultural intelligence: The art of leading cultural complexity*. The Burroughs, London: Middlesex University Press.
- Resnicow, K., Soler, R., Braithwaite, R. L., Ahluwalia, J. S., & Butler, J. (2000). Cultural sensitivity in substance use preven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3), 271-290.
- Ruddock, H. C., & Turner, de S. (2007) Developing cultural sensitivity: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a study abroad programm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9(4), 361-369.
- Sue, D. W., & Sue, D. (2008).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Walker, S. (2005). Towards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i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International Social Work*, 48(1), 49-62.
- Weis-Gal, I., & Welbourne, P. (2008). The professionalisation of social work: A cross-national explo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7, 281-190.

ABSTRACT

Intercultural training methods for adolescent service providers and multicultural adolescents : Based on the principl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Kim, Ye-Rang*

Respecting and embracing cultural diversity have become a major emphasis in Korean society as it transitions to an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y. Intercultural training programs have been utilized as an important tool for individuals to learn culturally appropriate attitudes and behaviors. In the past, intercultural training programs have largely depended on multicultural education methodologies but recently, there is a growing need for the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method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 the elem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discuss intercultural training methods as they may apply to both adolescent service providers and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s study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4 acculturation strategies(integration, assimilation, separation, marginalization) as presented by Berry(1997). The purpose and contents of both multicultural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re presented and discussed. Further, this study provides suggestions for intercultural training programs that target adolescent service providers and multicultural adolescents; it also discusses the ways in which intercultural training may be tailored to each of the 4 types of acculturation strategies in order to provide an intercultural training program that is more culturally appropriate.

Key Words : intercultural training, adolescent service provider, adolescents,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educati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투고일 : 6월 12일, 심사일 : 7월 20일, 심사완료일 : 7월 20일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nshin University.